KTX 호남선 증편 청신호…변전소 개량비 정부예산 반영

변전소 용량 증설 사업비 100억 편성
2028년까지 노령 등 4곳 단계 개량
내년 5월 중련운행…좌석 1천석대↑
姜시장 "지역 힘 모아 증편 기반 구축"

내년도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KTX-청룡)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광주지역 숙원인 'KTX 호남선 증편'의 기반이 마련됐다.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지연되던 증편 논의가 국가차원의 예산 확보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에 '고속철도 호남선 KTX-청룡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 등에 KTX-청룡 및 KTX-1 증편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온 데 따른 성과다.

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변전소 개량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득시킨 것도 주효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23일 광주송정역에서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호남선 운행 불공정 해소와 증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증편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KTX-청룡은 중련 편성 시 기존 KTX-1 대비 약 1.4배의 전력이 소비되는 만큼, 안정적인 증편 운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2023년 8월 KTX-청룡(중련) 시운전을 진행하던 중 정읍시 소재 노령변전소의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 변전소 용량 증설의 시급성이 정식 제기됐다.

광주시는 노령변전소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2026년 5월부터 KTX-청룡의 중련 운행이 가능해져 열차 한 편성당 1천석 이상 좌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기존 KTX-산천 중련 대비 약 300석 증가한 규모로 시민들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예산이 확보된 만큼 2028년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완료 이전이라도 KTX-청룡 중련 운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호남고속선 내 노령 변전소를 포함해 개량이 필요한 4개 변전소(노령·부용·논산·익산)의 변압기 용량 증설 사업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정부예산에 변전소 개량 사업비가 반영돼 단기적으로 KTX-청룡 중련 운행 가능성이 열렸고 장기적으로는 호남고속선의 안정적 증편 기반이 구축됐다"며 "KTX 호남선 증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추억의 충장축제 표창·감사패 전달 4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22회 추억의 충장축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이 열린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전남 에너지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돕는다

道, 키르기스스탄·우즈벡서 에너지위크
재생에너지·전략인프라 교류 협약 성과

전남도는 4일 "지역 에너지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일까지 5일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위크는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다. 태양광·소수력 발전 기업 등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에너지위크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전력계통 분야 정책교류와 기술협력, 시범사업 등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에너지 정책 우호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열린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선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 균형을 위한 키르기스스탄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남도 에너지정책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수출상담회에선 전남 12개 에너지 기업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관계자, 현지 바이어가 다수 참여해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전남 기업 컨소시엄은 현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4-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해 에너지위크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타슈켄트에서는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와 바이어를 상대로 지역 기업 컨소시엄의 기술 소개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위크를 통해 전남도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에너지 기업이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하면 곱창김이 덤"

10만원 이상 기부 2천명 증정 이벤트

전남도는 4일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케이(K)-김을 활용한 대규모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부문화 확산 뿐 아니라 전남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1일까지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후기를 작성한 선착순 2천명에게 전남 곱창김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는 기부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해 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위 달성을 위해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5일 도청 1층에서 '제1회 전남도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개최, 시·군별 홍보관 운영, 현장 기부 이벤트 등을 통해 연말 기부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디지털시대 전남 응급의료체계 발전 모색

심포지엄서 중앙-지역 등 협력 논의

전남도는 4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5일까지 이틀간 '2025년 응급의료 발전 심포지엄'을 열어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전남 응급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응급의료 사업 현황, 응급의료사업 추진 상황 공유,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생활권 중심 재난대응체계 변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행사 기간 현장응급의료소, 디매트 백(DMAT bag), 소방 구조 구급 장비 등 재난 대응 관련 장비를 직접 살펴볼 전시·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최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디지털 기술과 재난대응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중앙과 지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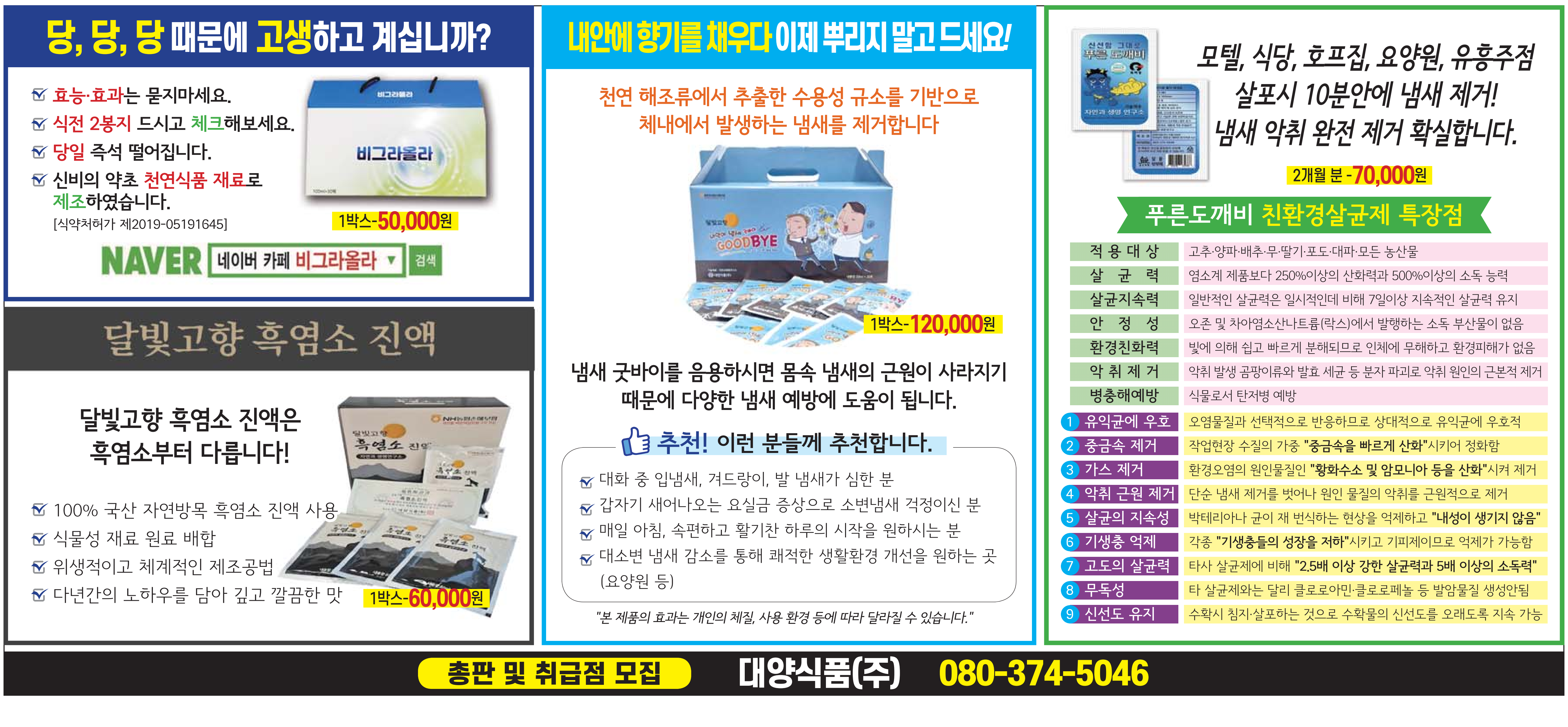
오늘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나주시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전략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시와 인근 전남 5개 시·군(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서남권 대도시권·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다.

경계지역 육성, 핵심산업 회랑 구축, 광역교통 연계 효율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담길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CMYK